

우리 옛장터를 비추는 세갈래 조명

「한국시장경제사」 「시장의 사회사」 「한국의 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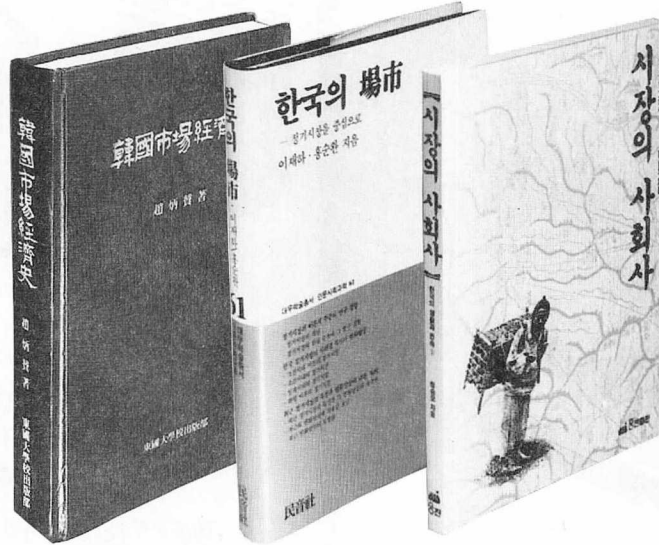
시장은 흔히들 생각하듯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라는 단순한 사전적 정의에 국한되지 않는 그 무엇이다. 시장에서는 물건 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모이고 교환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동구권 몰락과 구 소련의 해체를 겪으며 세계사적 규모의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적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선의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을 경우 잔혹한 정글의 논리대로만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비유되기도 한다.

이같은 시장의 ‘한국적’ 의미와 전개양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 세권이 최근 잇달아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韓國市場經濟史」(동국대 출판부), 「시장의 사회사」(웅진출판사), 「한국의 場市」(민음사)가 그것으로, 이 책들은 각기 그 중점 주제나 접근 방식에서 드러나는 편차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국의 시장에 논의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게다가 단행본 규모의 이 방면 연구성과가 거의 전무했던 기왕의 사정도 이 책들의 의의를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조병찬 지음 「한국시장경제사」

이중 가장 먼저 서점가에 선보인 조병찬교수(동국대·경제학)의 「한국시장경제사」는 제목이 지칭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통사적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 상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강점시대, 해방 이후 등 모두 6장으로 나눈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전개양상을 개괄하고 있는데, 문헌과 통계 등 전거가 확실한 구체적 실증자료들이 풍부하게 동원돼 한문적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료 구사의 난점 때문에 고려시대까지의 부분이 지나치게 소략하게 다뤄진 점이 다소 아쉽지만, 공간적 의미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건설을 비롯해 시장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상인집단의 특성, 상품유통의 구조, 각종 특수시장 등이 폭넓게 다뤄지고 있어 흥미를 끈다. 가령, 조선시대의 ‘상인 및 유통관련인’ 편을 보면 물상객주와 보부상, 거간꾼, 차인, 사환, 장꾼 등 당시의 상업활동에 종사했던 이들 뿐 아니라 그들이 묵던 주막에까지 연구의 손길이 닿고 있으며, 따로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개성상인’ 편에는 그들이 사용하던 장부와 부기법이 구체적인 실물자료와 함께 소개되기도 한다. 또, 해방 이후의 ‘생활필수품 공산품 시



온갖 물건과 정보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교환되는 삶의 공간인 시장에 대한 본격 연구서 세권이 잇달아 선보였다. 「한국시장경제사」 「시장의 사회사」 「한국의 장시」가 그것으로, 모두 우리나라의 시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나, 각각 경제학·민속학·지리학적 측면의 접근방법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장편’을 보면 오늘날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편의점 등의 연원과 한국으로의 도입 및 정착·발전과정 등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시장근대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역사와 전통의 진행케도를 일시에 단절하려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 존중하는 가운데 그속에서 비능률을 개선 또는 제거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접합시켜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장과 유통경제의 변천, 발달사를 체계화함으로써 오늘의 시장국면을 형성시킨 뿌리를 확인하여 오늘의 제현상을 그 근원으로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다.

정승모 지음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의 ‘한국의 생활과 풍속’ 시리즈 제2권으로 출간된 정승모씨(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의 「시장의 사회사」는 시리즈 전체의

맥락에 걸맞게 시장의 생활사 및 풍속사를 해명하는 데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책. 그런 점에서 경제사적 측면에서 시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한국시장경제사」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수많은 민중의 삶이 움직이는 생활사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개탄하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 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시장에 대한 고찰은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 즉 대다수 민중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들이 누리는 공간과 시간이 시장을 매개로 연결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시장은 민중의 삶의 방식, 즉 민속의 집결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속의 많은 부분이 시장을 통해 형성되고 또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다. 시장은 흩어져 있는 민중의 힘을 모으는 곳이다. 시장은 사회변동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모두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시장의 사회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서론격이라 할 제1장 ‘시장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우선 시장의 정의와 풍경을 다루며 시장이 단순한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상황이 인간의 행위와 거래되는 물자를 벌여 표출되는 복합적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제2장에서는 시장의 역사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부문별로 살펴본 다음, 제3장에서는 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농민문화의 바탕이 되는 시골 5일장이 왜 형성됐는가, 시골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장과 장을 잇는 장길은 그밖에 또 무엇을 이어주는가 등 시장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해 각종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다양한 사례를 동원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밖에도 경강상인, 객주와 여객, 보부상 등 여러 유형의 상인과 서울의 시전인 육의전과 백각전, 서울외곽의 가장 큰 난전이었던 송과장과 평양·대구·강경시장 등 조선의 3대시장 등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과거시장의 거래 관행, 도량형, 교통로, 속담까지 풍부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국시장경제사」에 비해 계몽적 수준의 입문서적 성격이 짙다는 점, 그리고 시장을 찾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과 행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들.

이재하·홍순완 지음 「한국의 장시」

경북대 지리학과와 이재하·홍순완 두 교수가 공저로 펴낸 「한국의 장시」는 여러 형태의 시장들 가운데서도 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채를 띤다. 게다가, 앞의 두 책이 각각 경제학과 민속학의 관점에서 쓰여진 데 반해 지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시장이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비교가 된다.

한국 정기시장의 특성과 변화양상을 밝히기 위해 쓰여진 이 책은 모두 다섯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밝힌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정기시장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체계화하여 검토함으로써 정기시장의 이론과 연구수준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3, 4장에서는 제2장을 통해 정리된 이론과 방법론으로 한국 정기시장의 제특성과 변화양상을 다루고 있는데, 제3장이 1960년대까지를, 제4장에선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가 거론돼 있다. 제5장 결론에서는 한국 정기시장의 발전과 변화양상을 토대로 정기시장의 변화이론을 도출하고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대우학술총서의 하나로 간행된 책인만큼 일반독자가 접근하기에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이 방면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여 페이지 분량의 권말 참고문헌 목록이 대단히 상세한 점도 이 책의 장점.

—강철주 기자

책으로 되살린 전통名舞의 현장

정범태 사진 · 구희서 글 '춤과 그 사람' 시리즈

어지간한 尙古취미에 조금은 국수주의적인 민족적 자존심, 게다가 잘 훈련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전통 춤이다. 판소리만 해도 이제 그 애호가 집단의 크기가 웬만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이 전통 춤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저 우리 문화예술의 단순한 古跡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설사 '사실'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보통사람들 마음 속에 각인된 '인상'만은 틀림없이 그렇다.

정범태씨의 사진과 구희서씨의 글로 이뤄진 열화당의 '춤과 그 사람' 시리즈는 그래서 이채롭고, 이채로운만큼 그 의의 또한 소중하다. 이른바 '溫故而知新'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춤에 관한 한 적어도 '溫故'의 역할만큼은 이 '춤과 그 사람' 시리즈가 충분히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춤과 그 사람'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 춤 고유의 풍류와 흥취, 기품과 격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리즈는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깝지만 절긴 향수의 생생한 현현이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책으로 가능한 우리 전통춤의 최상의 현사가 되고 있다.

인간문화재 춤꾼들의 춤과 그들의 춤 인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춤과 그 사람' 시리즈로 이번에 선보인 것은 모두 10권. 김천홍의 춘앵전, 한영숙의 살풀이, 이동안의 신칼대신무, 하보경의 밀양북춤, 유경성의 왜장녀춤, 이매방의 승무, 김숙자의 도살풀이, 김덕명의 양산사찰학춤, 강선영의 태평무, 안채봉의 소고춤이 각 한 권씩에 담겨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인

간문화재 춤꾼들과 만나오면서 그들의 춤 인생과 자신의 사진 인생을 함께 해 온 정범태씨의 흑백사진에 구희서씨의 해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각 권마다 40여장에 이르는 춤 사진은 특히, 정범태씨가 5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춤꾼들과 교류해 오면서 찍은 많은 사진들 중에서 춤꾼의 춤사위가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찍은 것들이어서 공연현장의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는 그 나름의 드라마를 지니고 있다. 이 드라마의 향유에 독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사진의 배열과 편집에도 세심한 배려가 가해지고 있는데, 예컨대 춤사위의 흐름을 함부로 분절하지 않은 채 춤의 마디와 흐름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춤미학의 사진미학으로의 전이와 일치를 시도하고 있다.

가령 김천홍의 춘앵전을 보면, 넓은 무대 중앙에 펼쳐 놓은 화문석 위에 두 손을 모으고 혼자 서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 그 작은 공간을 무한한 넓이로 사용하는 긴장과 균형의 춤사위가 연속되고 축적되면서 마침내 다시 읊하고 서는 靜中動, 動中靜의 아름다움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이매방의 승무에서도, 이매방 승무의 득의의 부분이라 할 현란한 장삼 놀음과 장관을 이루는 북놀음, 그리고 빼어나게 정확한 발디딤 등이 마치 무대를 보듯 펼쳐지며, 하보경의 밀양북춤에서는 농악 장단 특유의 활달함과 신명이 멋들어지게 재현되고 있어 독자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든다.

구희서씨의 해설은 각각의 춤에 대한 사실적 분석보다는 좋은 의미에서의 인상주의적 비평과 소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 춤꾼과

인간문화재 춤꾼 열명의 춤을 사진으로 되살리고 있는 이 책들은,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향수의 생생한 현현이라는 점에서 우리 옛춤에 바쳐진 최상의 헌사이다.



김덕명의 양산 사찰학춤

그의 춤에 반한 이만이 쓸 수 있는 애정과 공감의 글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춤꾼들이 걸어온 예도 한평생을 가계와 인맥을 곁들여 소개한 다음 그들의 춤이 갖는 본질과 아름다움을 감동과 찬탄의 어조로 묘사한다. 그에 따르면, 강선영의 태평무는 "경기도 도당굿에 나오는 부절놀이나 터벌림의 춤사위나 발의 디딤새에서 때를 벗기고 깨끗하게 간추려서 궁정 넓은 마당에 옮겨 놓은 것처럼 그 근원과 뿌리가 보이면서도 새롭고 의젓한 춤"이며, 김덕명의 양산사찰학춤은 "학의 모습, 노니는 거동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학처럼 고고한 정신, 학처럼 우아한 움직임 선비의 몸으로 표현하는" 춤이다.

또한, 경기무속장단의 잇중모리에 맞춘 이동안의 신칼대신무에서는 "장단 따라 어깨를 들먹인다든지 신명이 나서 경중경중 뚝뚝든지

흥으로 끌려나온 몸짓 같은 우리 춤의 즐거움만은 아닌, 뭔가 단단히 법도를 지켜 가며 그 속에서 춤의 정확한 맛을 찾아내려는 것 같은 단련된 맛"을 발견하며, "첫 움직임에서부터 큼직하게 마음을 흔든다"는 김숙자의 도살풀이에서는 "놀이판의 신명처럼 넘치는 흥겨움이 아니라, 제단 앞에 나선 사제처럼 엄숙한 신명"을 본다.

구희서씨의 해설과 함께, 인간문화재 춤꾼들과 맺은 개인적 인연을 주로 술회하고 있는 정범태씨의 머리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짙막한 일화들을 통해 인간문화재 춤꾼들의 예인으로서의 금도와 풍모를 엿볼 수 있으며, 그들 못지 않은 열과 성으로 우리 전통춤의 현장을 찾아 카메라에 담은 정씨의 끈질긴 노력 또한 행간에 배어 있어 흥미를 끈다.

한국의 기후와 문화

金蓮玉 지음 / 10,000원

우리나라 기후의 역사를 환경의 특색과 그 환경에서 이룩된 우리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서술하였다. 특히 고대자료를 기초로 한 기후사적 해석을 통해 한국인의 창조적 업적과 사회변동의 성격, 의식주·언어·풍속 등을 정리하였다.

科學革命的 構造

토마스 H. 쿤 지음 / 趙 馨 옮김 / 4,500원

과학 발달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과학 지식의 발전 및 변천에 관한 혁명적인 모델을 제시한 이 책은 모든 과학의 발달을 진화적 과정이 아닌 혁명을 통한 비약적이며 불규칙한 것으로 주장, 과학철학 및 사회학, 역사학의 논쟁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시인을 위한 물리학

로버트 H. 마치 지음 / 辛承愛 옮김 / 5,700원

수학적인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물리학자의 생애와 관련시켜 그들의 생각·추리·고민·연구과정을 흥미있게 표현함으로써 물리학의 발전과 이론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실적이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시킨다.

적응하는 인간 (상·하)

르네 두보 지음 / 金淑禧 옮김
상: 5,100원, 하: 4,900원

병원(病原)세균학자인 저자의 과학적인 관찰력으로 자연과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생명에 관한 모든 측면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에 근거하여 인간에 관한 모든 생물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학술출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360-3163, 360-3164 팩시밀리: 312-4312